## 알리는 말씀

當協會는 國內 最初로 火災豫防을 爲한 啓蒙文化映畵를 製作, 全國的으로 巡回上映을 벌이고 있읍니다. 上映에 따른 모든 費用은 無料입니다.

각 職場이나 共同住宅等에서 上映을 願하시면 아래 電話 번호로 連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電話 서울 交 ㉖ 4106—10 ㉕ 0082—5 ㉕ 1695—8 직 ㉗ 4127

釜山 ㉒ 7634, 4367 ㉓ 4807 大邱 ④ 4845 ④ 7144

仁川 ② 1446 大田 ② 2807

全州 ② 2655 光州 ② 2279 ② 3087

春川 2367 淸州 3638

馬山 2548

## 편집후기

★…봄과 함께 찾아오는 것이 新生이요 躍動이다. 긴 겨울의 休息과 潛伏으로부터 깨어나는 것이 봄이 갖는 自然이요 섭리인 것이다. 火災豫防역시 지난날 우리는 너무나 긴 休息과 冬眠속에 빠져 있었다.

봄이 오는 것이 自然의 섭리 인양 우리 모두 긴 冬眠에서 깨어나 火災豫防에 앞장서서 國家百年大計를 이루는데 솔선해야만 되겠다.

★…火災는 곧 "人災"라고도 한다. 불은 人間에게 가장 가까운 벗이기도 하지만 일단 人間으로 부터 疏外당하면 무서운 敵으로 變한다. 이처럼 불은 다루는데 따라 벗과 敵으로 나뉘인다.

우리 모두 불을 다루는데 있어 잠시도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다.

★…어느 外國人이 우리나라 사람을 가르켜 잘 참고 잘 기다리는 민족이라고 한다.

이 말은 듣기에 따라서 稱讚하는 말로도 들리나 그 反對의 말로도 들린다. 每事에 미리 준비않고 기다리다가 불똥이 발등에 떨어져 일을 그르침이 많다는 말로 풀이된다. 火災에는 참고 기다림이 있을 수 없다.

우리 모두 點檢받고 保險들어 일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겠다.

★…協會의 發展을 위해 많은 助言과 叱責事項을 보내주기 바란다.

겸들여 "火災安全點檢"의 보다 좋은 製作을 위해 原稿를 보내 주었으면 한다.

(揭載된 原稿에 對해서는 소정의 原稿料를 보내드리겠읍니다. 送稿하실 곳은 本協會 弘報室 電話 27. 4127)


**火 災 安 全 點 檢**

(通 卷 4號)

登錄番號 마 301

登錄日字 1973年 10月 11日

〈非賣品〉

發行人 吳 琳 根

編輯人 金 雲 淑

發行所 社團法人 韓國火災保險協會

서울 中區 草洞 21—9

電話 交 ㉖ 4106—10

㉕ 0082—5